

나치언어의 구조*

김종영(목포대)

1. 들어가는 말

1차 세계대전의 패망이후 독일사회의 총체적 위기 속에서 모두가 허둥덜 때, 히틀러는 상황을 꿰뚫어 보고 다른 누구보다도 본능적으로 대중의 동경과 욕구를 파악해 내어 이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적용시켰다. 그는 독일사람들의 상처 입은 민족감정을 포함하여 독일의 총체적 위기를 안겨다 준 온갖 것들을 조합하여 대중이 수긍하는 방식으로 알기 쉽게 연결시켜 나갔던 것이다. 그리하여 대중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를 파국의 시대에서 새로운 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내적인 통합운동으로 받아들였으며, 이 운동에 동참하여 미래를 보장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그들은 독일이 처한 위기상황을 국가사회주의 운동을 통하여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으며, 히틀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복음의 메시지로 받아들였다.¹⁾

나치는 언어가 갖고 있는 주술적 요소를 동원하고 당시의 국민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모든 요소를 통합 조작하여 상황에 따라 선동적으로 사용하였다. 그러한 조작된 언어를 통하여 독일 국민은 국가사회주의 선동정치의 노예로 전락하기에 이른다. 이와 같은 점에 착안하여 이 글에서는 당시 나치언어가 어떻게 독일 국민을 사로잡았으며, 그 언어의 어떠한 특성이 그들을 열광시켰는

* 이 논문은 김종영(2003)의 일부를 고치고 다듬어서 작성되었음.

1) 나치와 대중과의 관계는 흔히 명령과 복종 내지는 영도자와 추종자라는 원칙을 통해서 규정되고 있지만, 양자 사이의 관계를 단순히 명령과 복종의 관계로 규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당시 대중은 나치의 일방적인 지시만을 따랐던 존재는 아니었기 때문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곧바로 독일에서 국가사회주의가 커다란 정치적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대다수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브로호는 국가사회주의가 단순히 선동을 통해 성공하였다고 하는 식의 단순논리가 안고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Bloch1972: 103 참조). 파시즘의 이론적 연구에 공헌한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마르크제 등의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이론가들은 이러한 현상을 사회학적, 역사학적, 심리학적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지에 대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나치언어의 배경과 나치의 언어정책인 언어유도(Sprachlenkung)의 특성에 대하여 개관한 후, 나치언어의 구조적 특성을 통사구조와 어휘구조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나치언어의 특성

2.1. 나치언어의 배경

나치언어라 함은 히틀러의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NSDAP) 창설에서부터 제3제국이 멸망한 시기까지 나치가 사용한 특이한 용법의 언어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 용어는 ‘제3제국의 언어(Sprache im Dritten Reich)’, ‘국가사회주의의 언어(Sprache im Nationalsozialismus)’, ‘파시즘의 언어(Sprache im Faschismus)’, ‘히틀러-속어(Hitler-Jargon)’ 등과 같은 명칭들과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들 용어들은 대개 전체주의 언어라는 말과 연계되어 학술연구나 저널리즘에서 사용되어왔다.²⁾ 이 언어의 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나치언어’라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나치는 그들의 선전활동에 있어서 평범한 사람들의 독자적인 사고를 현혹시키기 위하여 표어와 선동구호를 뽀스

-
- 2) 자이델과 자이델-스토티(Seidel/Seidel-Slotty)가 공동으로 연구한 제3제국시대 언어 변화에 있어서의 문법과 문체영역에 관한 연구와 베르닝(Berning)의 어휘영역에 관한 연구가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언어에 대해서 히틀러와 뫼벨스(Goebbels)를 빗대어 언급하는 연구자들도 있다. 이를테면 클렘퍼러(Klemperer)는 이 시기의 언어는 뫼벨스가 절대적으로 지배하고 그 특징은 히틀러의 『나의 투쟁(Mein Kampf)』에 들어 있다고 언급했다. 베르닝도 히틀러가 끼친 영향에 관해 언급했고 뫼벨스를 나치 언어의 주형제작자로 명명했다. 케세마이어(Kessemeier)도 뫼벨스가 이 언어에 막강한 영향을 미쳤고, 뫼벨스의 문체가 제3제국의 문체와 일치한다고 언급했다. 파시스트 연설의 성공적인 면을 부각시키는 연구들도 있다. 문체연구에 있어서의 베드레프(Wedleff)의 연구를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특히 히틀러의 오월 연설을 분석하면서 연설에 등장하는 어휘와 문체를 히틀러의 독특한 수사학으로 간주하였고, 히틀러의 언어적 능력에 힘입어 연설은 커다란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였다. 펠프스(Phelps)도 연설가 히틀러의 마술이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을 이끌었다고 하였다. 이 시기 언어 연구의 총체적 개관에 대해서는 김종영(2003: 2ff.) 참조.

적으로 그리고 탁월한 솜씨로 혼합시킨 말을 사용하였다. 이 혼합은 모든 요소를 동원한 것으로서 20년대와 30년대의 보수적이자 대세 순응적인 독일인들에게 친숙하고 듣기에 편안하고, 그들 말의 기원을 갖가지 '운동'과 이념 속에 지니고 있는 것들이었다. 이를테면 이 말들은 자유전쟁들과 보나파르트주의적으로 부패된 제국 이념의 정신 속에 그 기원이 있고, 그리고 정부당국의 권위주의적 사고와 국가교회주의 속에, 프로이센적 군사주의와 경제적 팽창 국수주의, 역사주의와 반유태주의, 낭만주의와 소시민주의, 청년운동과 게오르크 서클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³⁾

이러한 배경 속에서 나치언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양하게 혼합하여 대중을 설득하고 조종해 나가기 위한 정치적 선전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나치언어의 특성으로는 선동적인 성격과 표현의 상승고조효과를 위해 반복이나 중복해서 나타내는 어법, 강력한 효과를 내는 표현들, 불분명한 개념이나 모호한 표현들을 들 수 있다.

2.2. 나치의 언어유도

나치집권기인 1933년에서 1945년 사이의 12년의 기간동안에는, 국가사회주의자들이 어휘를 변형하고 몇몇 낱말을 삭제하고 일부는 도입하고 일부는 단지 특정 용례로만 허용하였다.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말할이의 사고양식과 행동양식에 효과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계획이 추구되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언어유도였다. 언어유도란 일정한 관심이나 이념에 입각하여 공공의 언어사용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⁴⁾

언어유도는 나치가 국민대중을 선동하고 조작하기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이용되었다. 국가사회주의자들은 독일국민들을 사회전반에 걸쳐서 무의식적으로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동조하도록, 언어를 조작하고 유도하였던 것이다.⁵⁾ 나

3) Polenz(1978: 164f.).

4) 인간의 사고와 감정은 언어를 통해 만들어지고 조종될 수 있기 때문에 왜곡된 언어가 통치수단으로 사용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5) 1933년에 국가사회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은 순간부터, 그들은 언어를 선전과 선동수단으로 사용하여 언어의 순 기능을 철저하게 박탈해 버렸다.

치 언어의 언어유도는 다양한 색조를 띠고 있다. 부드러운 완곡어법에서부터 거칠고 조악한 역사날조에 이르기까지 그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다. 뿐만 아니라 제3제국의 언어유도는 체계적이고 구속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⁶⁾

제국언론관장 부서에서 하달된 ‘언어지침’은 통일되고 규범에 맞춘 기사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표어나 슬로건을 삽입할 것인가 삭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개별 낱말의 유용 무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언어유도의 목표는 인간유도이다. 인간유도는 언어유도가 인간을 계획된 행위에 적응하도록 하는 임무를 갖고 있던 전쟁기간동안에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를테면 1939년 9월에 일어난 사건은 처음에는 전쟁이라고 명명될 수 없었다. 언어유도를 통해 인간을 전쟁준비를 위한 도구로 만들어버렸으며, 전쟁 중에는 자유와 축제라는 낱말의 사용이 금지되었다. 지리적 명칭은 침략과정에서 변경되었으며, 이데올로기를 위하여 낱말의 의미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⁷⁾

3. 나치언어의 통사구조

나치언어의 구조는 일반적인 언어구조와 비교해서 볼 때 많은 차이가 난다. 무엇보다도 두드러지는 특성은 서로 상이한 개념들이 하나의 표현 형식에 융합되어 나타난다는 데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종종 표현이 상승 고조되는 효과를 내기도 한다. 아울러 표현에 들어 있는 모호한 내용은 대중을 현혹시킨다.

6) 국가사회주의에서 행한 언어유도의 특성은 다음의 글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1933년 1월 30일의 변혁 이후 저널리스트들은 형식적으로 제국정부의 언론관장부서에서 개최되는 출판회의에 ‘초대’를 받을 경우, 출판회의의 통보와 지침을 받아들이고 어떠한 출판물이 ‘요구되고’, 허가되고 금지되는지에 대해 숙달하도록 강요되었다. 이러한 ‘지침’이 ‘언어규정’, 후에 ‘제국언론국장의 매일 매일의 표어’로 명명되어 엄하게 지켜져야 했다.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신문기자는 처벌을 받았고 그 신문은 금지될 수 있었다 (...) 의장은 회의를 열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했다. 회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대개 의장에 의해서 설립된 ‘언어규정’을 발표하는 것이었다 (...) 그것을 복종하지 않을 경우 반역으로 간주될 수 있었다.”(Berning 1962: 160).

7) 국가사회주의에서의 언어유도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김종영(2003:17-44) 참조.

그리고 나치언어의 통사구조에서는 부가어가 많이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부가어가 될 수 없는 순수 부사어도 나치언어에서는 부가어가 된다. 부가어가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부가어와 동격 사이의 경계도 불분명해진다. 더 나아가서 표현을 극대화해야 하겠기에 나치언어에서는 최상급도 많이 사용된다.

나치는 대중을 설득하고 조종하기 위하여 옛날방식의 문장구조도 사용한다. 이를테면 속격 부가어가 선행하여 나타나는 문장을 이용하여 보수 층의 대중을 공략해나간다. 여기에는 지식 있는 상류층의 마음을 잡으려고 하는 의도도 내포되어 있다. 이제 나치언어의 통사구조의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3.1. 형용사 부가어

나치언어에서는 형용사 부가어가 눈에 띄게 많이 사용된다. 이는 나치가 대중에게 인상적인 모습을 주기 위하여 문장 성분의 일부를 반복 사용하는 경향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어법에서 가장 많이 선호되고 있는 수단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형용사 부가어를 이용하여 문장구조를 통사적으로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듣는 이로 하여금 문장의미가 한층 강조되었다는 느낌을 갖도록 하여, 그 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한다.

부가어 기능은 형용사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이다. 부가어로 사용되는 형용사는 대개 성구적으로 고착화된 경향을 띠게 되어 장식적 형용사(epitheton ornans)가 된다. 나치는 부가어적 형용사의 이러한 특성을 즐겨 사용하였기 때문에, 형용사 부가어는 그들의 특징적인 언어 수단이 되었다.⁸⁾

형용사 부가어는 보통 판에 박은 듯한 상투적 표현에서 자주 나타난다. 이를테면 ‘믿음이 두터운 신뢰(gläubiges Vertrauen)’, ‘굽히지 않는 결심(unbeugsamer Entschluß)’, ‘영원불변의 의지(unabänderlicher Wille)’, ‘압도적 다수(überwältigende Mehrheit)’, ‘활기찬 발전(lebendige Entwicklung)’, ‘최상의 임무(höchste Aufgabe)’ 등의 표현이 이에 해당된다.⁹⁾ 이들 표현들은 형용사

8) 당시 대중에게는 이러한 언어수단은 나치당의 공식적인 언어처럼 여겨졌다. 이러한 어법들은 일상의 언어표현에도 영향을 주게 되어 출판언어에 등장하였다. 한편 나치 언어연구가들에게 있어 이러한 어법은 새로운 세계관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표지로 인식되었다.

부가어와 명사의 관계가 밀접한 말들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표현을 상승 고조시키는 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나 이 어법은 너무 많이 사용되어서 더 이상 새로운 의미를 지니지 않게 되었다. 형용사 부가어의 의미적 가치와 통사적 기능에 대한 둔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다. 나치 연사들은 더욱 강력한 효과를 얻기 위하여 부가어 성분의 수를 늘려 문장에서 사용하였다.¹⁰⁾ 따라서 형용사 부가어가 이중으로 결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종종 나타난다.

이러한 이중결합은 부가어적 형용사의 새로운 형태로서, 두 개의 부가어 간의 의미적 연관관계가 사용될 수 있는 환경을 결정한다. 두 부가어간의 의미가 서로 연관되는 것들이 함께 결합되어 사용된다. 그러니까 긍정적 의미는 긍정적 의미끼리, 부정적 의미는 부정적 의미끼리 묶이게 된다. 이를테면 ‘국가사회주의의 운동(national-sozialistische Bewegung)’, ‘유태-마르크스적 사주(jüdisch-marxistische Hetze)’, ‘유태-볼세비키의 그릇된 교리(jüdisch-bolschewistische Irrlehren)’, ‘마르크스-볼세비키의 범죄자(marxistisch-bolschewistische Verbrecher)’, ‘정신과 의지를 갖춘 부대(geistig-willenmäßige Einheit)’ 등의 표현법이 이에 해당된다.¹¹⁾

그러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형용사 부가어들이 함께 나타나기도 하고, 상이한 통사적 환경을 갖고 있는 부가어들이 함께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 표현들은 수사학적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동의어가 중복되거나 유사어가 반복되어 나타나는 의미의 중복현상도 마찬가지로 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이를테면 다음과 같은 표현이 이에 해당된다.

비할 데 없이 훌륭한 과거의 유산과 마찬가지로 비할 데 없이 찬란한 현재와 미래의 증서¹²⁾

위의 구절에서는 동일한 낱말과 기저 어가 같은 낱말이 두 번 나타난다. 의미의 중복이 일어나고 있다. 의미적으로 잘 결합되는 부가어들도 그 통사적 전

9) Vgl. Volmert(1989: 143).

10) 이는 나치 연사들이 갖고 있는 논리적 설득수단의 황폐함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도 있다.

11) Vgl. Volmert(1989: 143).

12) Seidel/Seidel-Slotty(1961: 143).

개 순서가 엄연히 존재한다. 즉 표현의 강도가 높고, 의미 가치가 더 큰 부가어가 앞에 위치하게 된다. 그러나 어떤 것이 더 큰 효과를 가져다주는 부가어인가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나치 연사보다도 히틀러의 수사학에 있어서 특징적인 현상은 부차적인 부가어의 사용이다. 이것은 일차 부가어를 양적, 질적으로 규정하는데 이용된다. 이 경우 부가어적 가치를 극대화시키거나 강화시키는데 이용될 수 있는 요소들이 선호된다. 일상어적 표현보다는 더 강력하고 풍부한 뉘앙스를 제공하는 표현들이 사용된다. 이를테면 ‘아주(sehr)’, ‘특히(besonders)’, ‘비정상적인(außerordentlich)’ 같은 일상어 표현 대신에 더 강력한 표현인, ‘전대미문의(unerhört)’, ‘유일무이한(einzigartig)’, ‘유일한(einmalig)’, ‘백만 배(millionenfach)’, ‘정말로(wirklich)’, ‘참으로(wahrhaft)’ 등이 더욱 선호된다.¹³⁾ 지시대명사가 부가어와 결합하여 사용되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게 일어난다.¹⁴⁾

3.2. 부사 규정어

부사 규정어가 부가어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와 한 문장에서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오는 경우도 나치언어의 독특한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나치언어의 명사문체 경향과 관련된다. 진술된 표현 가운데 명사적 성분에 그 의미의 중요성이 집중되기에, 전체적으로 술어동사의 의미가 나약해진다.¹⁵⁾ 따라서 부사 규정어를 통해 술어동사의 나약해진 의미를 보강하게 된다.

13) Vgl. Volmert(1989: 144). 이들 표현들은 부가어 이외에 강조 뜻의 부사로도 쓰인다.

14) 다음의 예들이 이를 잘 시사해주고 있다. “시대의 이러한 중요한 문제/ 이러한 우리의 행위의 결과/ 나는 이러한 동일한 정신에서 제안하였습니다”(Volmert 1989: 145f.).

15) 이는 나치 시대에 증가하기 시작한 명사문체 가운데 하나인, 기능동사를 말한다. 이를테면 ‘질문하다’라는 말을 표현할 적에 fragen 대신에 eine Frage stellen이라고 하고, ‘표현하다’라고 할 적에도 ausdrücken 대신에 zum Ausdruck bringen을 사용한다. 이처럼 원래의 동사가 갖고 있는 의미는 명사화되고, 대체되어 나타나는 동사는 문법적인 기능만을 담당한다. 기능동사는 현대독일어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표현 수단이다.

우리는 오늘 엄청난 대변혁의 시대에서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인종적으로 살고 있습니다.¹⁶⁾

국가사회주의의 국가는 문화적으로도 완전히 불확실한 세계와 잘 짜여져 단호하게 맞서 있습니다.¹⁷⁾

위의 두 문장에서는 부가어적 부사가 본래의 기능인, 술어를 규정해 주는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위의 두 문장의 내용이 각각 '우리가 역사적, 사회적... 에서 살거나' 국가사회주의국가가 '세계와 문화적으로 대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들 부사 규정어들은 철저하게 위장된 부가어들이다. 첫 번째 문장의 내용을 논리에 맞게 통사적으로 재구해 보면 다음의 두 가지 형태가 가능하다.

- 1) 우리는 오늘날 역사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으로 엄청난 대변혁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 2)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인종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오늘 엄청난 대 변혁의 시대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치는 감성에 호소하여 대중을 설득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중을 위협하여 제압하려고 한다. 따라서 그들은 시종일관 명령조의 톤으로 연설을 한다. 나치는 보다 큰 효과를 갖고 있는 내포개념이 들어 있는 낱말이나 문장구조를 이용하여 청중을 압박한다.¹⁸⁾

나치언어에서는 부사영역에서도 눈에 띄는 추이가 일어난다. 등급에 있어서 그리고 뉘앙스 상으로 변형되거나 화자의 입장으로 변형된 술어부사어가 점차 사라지게 되었다. 술어부사어는 종종 분사구문으로 나타난다. 이 부사어들은 관련된 낱말이 명사화됨에 따라 일차부가어나 이차부가어로 변한다. 그래서 해

16) Hitler(1938: 14).

17) Hitler(1938: 24).

18) 달리 표현하면, 파시스트들은 수사학적 반복의 스타카토와 과장된 비유로 대중을 설득하기 위하여 노력한다고 할 수 있다.

당 명사그룹을 확장시킨다.

외관상 계속적인 상승¹⁹⁾

‘상승하다(steigen)’라고 하는 술어가 명사화되고, 부사어 ‘계속적으로(fortgesetzt)’, ‘겉보기에(scheinbar)’가 ‘상승’을 수식해주는 부가어로 변화였다. 나치언어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은 분사구가 빈번하게 많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열정적으로 확신에 가득 차서/ 걱정으로 가득 차서/ 결연하고 성실한 우리의
맹세²⁰⁾

이러한 어법들은 나치 연설에서 관례적으로 사용되는 상투어로 굳어졌고, 성대한 행사에서 장엄하게 시작되는 연설 도입부에서 자주 나타난다.

3.3. 최상급

나치언어에는 기괴하고 과장된 표현방식이 눈에 띈다. 나치는 정도의 표현을 나타낼 적에 극단의 가치를 부각시킬 수 있는 어법을 선호하기 때문에, 비교급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경우도 가급적 최상급으로 표현한다. 이 경우, 비단 문법적 형태의 최상급인, 절대적 최상급이나 상대적 최상급만이 아니라 의미상 극단의 가치를 띠고 있는 낱말들까지도 나타난다. 이를테면 ‘엄청난(ungeheuer)’, ‘거대한(gigantisch)’, ‘굉장한(riesig)’, ‘굉장히 큰(unerhört)’, ‘유일한(einmalig)’, ‘유례가 없는(einzigartig)’ 등이 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들 표현들은 너무 많이 사용되어 점차적으로 최상급의 의미보다는 상투적인 의미를 띠게 된다. 말하자면 이 표현이 나타내고 있는 사태의 질적인 면에 있어 그 극단적 가치를 지칭하는 기능이 나치 연사의 의식 속에서 점차적으로 사라지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더욱 강력한 언어수단을 필요로 했다. 이를테면 극단의 가치를 띠고 있는 표현이 문법적으로 최상급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던 것

19) Volmert(1989: 148).

20) Volmert(1989: 149).

이다. 이를테면 ‘삶에서 중요한(lebenswichtig)’은 ‘삶에서 가장 중요한 (lebenswichtigst)’으로, ‘숭고한(erhaben)’은 ‘가장 숭고한(erhabenst)’으로, ‘엄청난(ungeheuer)’은 ‘가장 엄청난(ungeheuerst)’으로 대체되었다.²¹⁾ 이밖에도 표현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점층적 표현 수단으로, 비교급을 반박의 여지가 없는 표현방식과 결합시키는 어법이 나타난다.

우리는 독일 국민이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변혁의 증인들입니다.²²⁾

여기에서는 ‘일찍이 경험하지 못했던’이라는 표현이 ‘어마어마한(gewaltig)’이라는 낱말과 결합하여 표현의 내용을 더욱 상승 고조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조표현도 그 사용빈도가 늘어남으로써 더욱 강력한 표현방법을 추구하는 나치 연사에게는 부족했다. 그래서 연사들은 상투적인 표현을 추가시켜 표현의 수위를 확장하고 더욱 강화시킨다. 이를테면 ‘가장 위대한 업적(die größten Taten)’은 ‘우리 민족 역사의 위대한 업적(die größten Taten in der Geschichte unseres Volkes)’으로, ‘가장 거대한(gigantischst)’은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거대한 방어시설(das gigantischste Befestigungswerk aller Zeiten)’로 바뀌 표현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예 기본 낱말을 새롭게 풀어서 강조하는 경우도 있다. 이를테면 ‘제국전당대회(der Reichsparteitag)’는 ‘모든 민족과 시대를 통틀어 가장 성대한 집회(die größten Kundgebung aller Völker und Zeiten)’로 표현되었다.²³⁾

이렇게 최상급의 극단적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동시에 그 표현의 효과가 둔감해지는 과정이 일어나면 더욱 강도 높은 표현이 추구하고 선호되는 경향을 띠게 된다. 나치 연사들이 이와 같은 수사학적 강조어법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이유는 대중을 집단적 최면상태로 몰고 가서 나치즘이 추구하는 바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이다.²⁴⁾

21) Vgl. Volmert(1989: 152).

22) Hitler(1938: 14).

23) Vgl. Volmert(1989: 152).

24) 실제 연설장면을 보면, 열광해서 혼절하는 대중의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다. 연사도 함께 동조되어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연설도식에 따라 못하는 경우도

3.4. 속격 부가어

일반적으로 독일어에서의 속격 부가어는 규정해주는 명사 뒤에 위치한다. 그러나 특수한 문체적 효과를 얻기 위하여 명사에 선행하는 경우도 있다. 선행 속격 부가어는 일종의 고풍어법으로 옛날에는 상류계층에서만 사용되었다.²⁵⁾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지식 있는 교양계층의 시민들에게 교양을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 국가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실현하려는 의도에서 선행 속격 부가어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물론 이렇게 하는 데에는 보수 층의 마음을 얻는 것도 염두에 두었던 것이다.

각각께서는 과거에 제국이 생겨난 것을 경험하였고, 제상의 위대한 업적인, 우리 민족의 놀라운 용성을 보셨습니다.²⁶⁾

위의 연설문에서는 선행 속격 부가어가 두 군데에서 나타나고 있다. 즉, '제국의 생성(des Reiches Werden)' 과 '제상의 위대한 업적(des großen Kanzlers Werke)'에서 선행 속격 부가어가 사용되고 있다.

지금까지 나치언어의 통사구조를 살펴 보았는데, 표현의 강조를 위해 부가어가 중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앞에 나오는 표현이 뒤에 나오는 표현을 자세하게 규정해 주기도 하고 강화시켜주기도 하여, 표현의 상

관찰된다. 이는 극단적 언어표현을 추구하는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25) Vgl. Eisenberg(1989: 250). 이를테면 고어에서 '왕의 수행원(des Königs Gefolge)'이 나 '겨울의 위력(des Winters Macht)'이라고 할 경우, 이것은 오늘날의 'das Gefolge des Königs'나 'die Macht des Winters'의 표현을 '관사+명사'의 꼴로 부가어를 선행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옛날에는 이와 같은 선행 부가어가 품격이 높은 언어라 하여 즐겨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표현방법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늘날에는 고풍스런 표현이나 기자들의 언어 따위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게 되었다. 이를테면 '그는 아내를 매우 사랑한다'는 뜻의, '그 남자의 천국은 곧 그의 부인이다(Des Mannes Himmelreich ist seine Frau.)'의 경우는 고풍스런 표현에서의 선행 속격 부가어가 사용된 경우이다. 그리고 '수상의 의도(des Kanzlers Absicht)'라는 표현방법은 기자들의 출판언어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프랑스의 외교정책(Frankreichs Außenpolitik)'과 같이, 관사가 없이 쓰이는 선행 속격 부가어는 오늘날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26) Klöss(1967: 92).

승고조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이용된다. 이러한 특성은 나치언어가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집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나치언어의 어휘구조

나치는 나치즘의 이데올로기를 언어 속에 의도적으로 삽입하여 대중을 선동하는 통치수단으로 이용하였기에, 하나의 어휘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대중을 설득하고 조종하기 위하여 보다 효과적인 어휘들을 선택하였다.²⁷⁾ 나치는 다양한 조직이나 행정단위 명칭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낱말을 거의 도입하지 않았다. 새롭게 형성된 게르만 신비주의와 인종이데올로기, 사회주의 영역에서 많은 표현들을 넘겨받았다.²⁸⁾ 이 어휘들은 독일적 이상을 역동적으로 표현해 낼 수 있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 정치적 연설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면서 나치 이데올로기 실현에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이제 어휘구조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4.1. 유행어

나치는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갖고 있는 낱말들을 선호하였다. 이런 낱말들

27) 제3제국의 어휘사용에 있어서 인지되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제3제국의 기간 동안 몇몇 의미, 어휘영역에서 이루어진 어휘의 발달은 특히 두드러지게 눈에 띈다. 이를테면 옛날 낱말의 사용, 권력과 폭력에 관련된 용어들, 군대용어의 사용, 인종 신화적 낱말들, 감정적 표현과 이념적 표현의 사용 그리고 종교와 생물학 및 의학의 영역에서 연유하는 은유의 사용 등등이 그러하다. 아주 특별하게 이 영역들에서 새로운 낱말들이 주도되어 새롭고 윤색된 의미가 유포되거나 핵심어휘들이 이들 신조어에서 유래하게 되었다.”(Keller 1986: 587).

28) 이를테면, ‘민족적 사고(völkische Gedanke)’, ‘타종족상간(Blutschande)’, ‘아리아인(Arier)과 비 아리아인(Nicht-Arier)’ 등의 낱말이 있다. 그리고 대개의 많은 나치 어휘들은 빌헬름 시대(Wilhelmische Ära)의 유산이었다. 이를테면 ‘독일의(deutsch)’, ‘민족(Volk)’, ‘국가(Nation)’, ‘명예(Ehre)’, ‘자신만만한(schneidig)’, ‘비길데 없는(unvergleich)’, ‘전체의(total)’, ‘힘찬(energisch)’, ‘가차없는(rücksichtslos)’ 등과 같은 어휘들이 있다.

은 빈번하게 사용됨으로 해서 유행어가 되었다.²⁹⁾ 먼저 나치이데올로기와 관련된 어휘들의 특성을 고찰해보기로 하자. 이데올로기적인 어휘 가운데에는 ‘피와 대지(Blut und Boden)’³⁰⁾와 관련된 용어가 많다. 이 말은 1930년경에 국가 사회주의의 기본명제를 지칭하는 전형적인 상투어가 되었다. 말하자면 권력과 국가란 단일 인종과 영토라고 하는 기반 위에서만 가능하다는 논리가 이 말 속에 들어 있는 것이다.

피와 대지의 이데올로기 관련 낱말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낱말 ‘피(Blut)’는 이성적이기보다는 본능적이고 충동적인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이성이나 의지와 같은 정신적인 대상과 반대되어 나타난다. 이 낱말은 종종 완곡적인 대체 성격을 갖는다. 효과 면으로 볼 때, 이 낱말은 은유처럼 작용하여 종종 사람 대신에 사용되기도 한다.

내전에서 가장 좋은 피를 낭비하다/ 정치와 군대에서 지도적이었던 게르만의 피/ 독일 피의 공간적 확장³¹⁾

‘피’라는 낱말은 ‘공동의’라는 낱말과 결합하여 ‘우리 모두’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공동의 피는 평화와 평온을 찾을 것이다.³²⁾

피와 대지의 이데올로기 용어에서 ‘대지(Boden)’라는 낱말은 ‘피’보다는 드물게 나타난다.

대지는 예나 지금이나 모든 민족문화의 원천이라는 사실³³⁾

29) 이데올로기적 속성을 갖고 있는 낱말이란 나치즘에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을 지칭하는 낱말들, 나치의 ‘이상’을 지칭하는 낱말들이다. 특히 피와 대지의 이데올로기와 역동성의 이상과 군대용어를 지칭하는 낱말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30) 이 낱말은 ‘피와 대지’를 지칭하는 독일어 ‘Blut und Boden’을 줄여 ‘브루보(Blubo)’라고 하는 약어로 자주 쓰인다.

31) Seidel/ Seidel-Sloty(1961: 82).

32) Seidel/ Seidel-Sloty(1961: 82).

33) Seidel/ Seidel-Sloty(1961: 87).

위의 문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말은 구체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간접적으로 '무엇을 위한 배양소'로도 쓰인다. 이를테면 정신적인 어떤 것이나 예술적인 어떤 것을 위한 원천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파시즘 이데올로기 관련 용어에서 그 뿌리나 토양을 지칭할 때 이 낱말이 많이 사용되었다.

'피', '대지', '민족'이라는 낱말이 갖고 있는 표상은 늘 함께 묶여서 나타난다. 따라서 '결합' 이나 '연결'의 내용이 들어 있는 'binden', 'verbunden', 'gebunden' 과 같은 낱말들은 피와 대지의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낱말들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난다.

피에 의하여 영원히 결속되어 있는/ 대지와 함께 혈족으로 묶여 있는 게르만 인³⁴⁾

이제 '민족(Volk)'이라는 낱말의 사용에 대해 알아보자. 나치언어에서 이 낱말은 가장 핵심적인 낱말이다. 이 낱말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 첫째, 시민적 데카당스와는 반대로 원시 그대로의 순수성이 들어 있으며, 둘째, 정치적 단위로서의 국민이라는 뜻과, 셋째, 계급과는 반대로 인종적으로 통일된 단위라는 뜻이 들어 있으며, 넷째, 피와 대지에 의해 역사적이고 운명적으로 규정된 관념이 들어 있다.³⁵⁾ 따라서 민족이라는 낱말의 개념은 그 자체로 이데올로기적 특성을 강하게 갖는다. 나치는 이를 이용하여 독일 민족이라고 하는 위대한 공동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를테면 그들은 유대민족이나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민족을 독소와 세균으로 은유화 하여 독일민족과 대비시켰으며, 독일민족이라는 말에 놀라운 신앙의 힘과 끝없는 가능성을 부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민족이라는 낱말에는 강한 호소 기능이 자리하게 된다. 이 낱말은 낱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보다는 그것이 불러일으키는 격정적 내용으로 이해된다. 아울러 이 낱말은 자신을 단념하고 소위 외국인에 대한 공격적 입장을 불러일으킨다. '동포', '외국의 독일민족', '민족국가' 그리고 다른 많은 낱말결합은 늘 반복해서 이러한 표상을 상기시킨다. 민족이라는 말은 오로지 '독일민족(ein deutsches Volk)'³⁶⁾을 위해 사용되도록 언어유도 되었다.³⁷⁾

34) Seidel/Seidel-Slotty(1961: 89).

35) Vgl. Berning(1964: 191).

‘민족’이라는 낱말은 많은 합성어와 파생어를 만들어 낸다. 이를테면 ‘민족성(Volkstum)’, ‘민족적인(volkstümlich)’ 등의 파생어를 비롯하여 ‘민족공동체(Volksgemeinschaft)’, ‘동포(Volksgenosse)’, ‘위대한 민족(Großvolk)’ 등의 합성어가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 가운데에서 ‘민족공동체’라는 낱말은 사회 각 계 각층의 다양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는 독일인들이, 피와 대지로 묶이는 운명공동체로 만나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동포(Volksgenosse)’라는 말은 나치언어에서 민족공동체의 구성원을 말한다. 원래의 이 낱말에는 중립적, 사회적, 인종적 관점의 세 가지 의미가 들어 있다.³⁸⁾ 나치언어에서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서로 뒤섞이어 사용되지만, 주로 인종적 의미와 사회적 의미가 강조되어 사용되는 경향을 보인다.³⁹⁾ 1933년 이전에는 여러 진영에서 사용되어 왔던 ‘동포’라는 말은, 나치가 집권한 이후 그들의 전유물이 되었다. 급기야 이 말은 연설이나 포고문에서 일반 대중을 지칭하는 호칭으로 굳어져 사용되었다.⁴⁰⁾

지금까지 나치언어에서 이데올로기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어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들 어휘말고도 이들 어휘들과 연결되어 나치 이데올로기를 한층 강화시키는 일련의 낱말들이 있다. 이들은 아주 빈번하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어느 경우에는 의미가 변화되기도 한다.⁴¹⁾ 이들 어휘

36) ‘독일의(deutsch)’라고 하는 낱말과 ‘민족(Volk)’이라는 낱말의 내용은 거의 동의어로 사용될 정도로 사람들은 ‘독일의’라는 낱말을 높이 평가하였다. 파시스트들도 이 낱말을 ‘국가사회주의의(nationalsozialistisch)’의 동의어로 사용하였으며, 이 말을 이용하여 종교적으로 가장하려고 노력했다. 이를테면 이 낱말은 ‘성스러운’, ‘믿음’, ‘소생’, ‘순교자’ 같은 내용을 갖고 있는 낱말들과 어울려서 종종 나타난다.

37) Vgl. Berning(1962 : 168). (ZSg 101/8, Nr. 821/11.8.1936) ‘가톨릭 민족’, ‘교회민족’, ‘신교민족’이라는 말들은 무조건 사용될 수 없다. 오로지 독일민족만이 있을 따름이다.

38) 첫째는 중립적인 의미로, 주로 조국에 대한 열정과 결부되어 사용되고, 둘째는 사회적인 의미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의미가 강조되고, 셋째는 인종적 의미로 인종이데올로기와 결부되어 사용된다.

39) 국가사회주의 노동자당 강령 안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들어 있다. “동포이기만 하면 국민이 될 수 있다. 독일 출신이기만 하면 종파를 고려하지 않고 동포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대인은 결코 동포가 될 수 없다.”(Berning 1964: 199).

40) 이를테면 일반 국민을 염두 해두고 하는 거의 모든 연설문은 ‘나의 독일 동포 여러분(Meine deutschen Volksgenossen und -genossinnen)’으로 시작한다.

41) 의미변화는 때로는 낱말의 사용범위와 빈도에 따라서 일어나고, 때로는 부차적으로

들은 대부분 역동적인 특성을 띠고 있다. 국가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에 이용되었던 여러 어휘 가운데에서 우선 ‘맹목적으로(blindlings)’라는 낱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자. ‘맹목적으로(blindlings)’라는 낱말은 나치가 요구하는 국민들의 이상적 행동을 나타내기 위하여 공개적 식사에서 즐겨 쓰는 말이었다.

맹목적으로(blindlings)라는 낱말은 제3제국 언어 중에서도 주도적인 낱말에 속한다. 이 낱말은 나치가 그들의 총통과 그들의 개별 상황에서의 하위 지도자들에 대해서 갖는 나치적 정신성의 이상적인 상태를 뜻한다. 이 낱말은 “광신적인(fanatisch)”이라는 말 못지 않게 사용된다. 그러나 내가 하나의 명령을 맹목적으로 수행하려면 그 명령에 대하여 애당초 숙고를 해서는 안 된다. 숙고한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정제, 주저를 의미하고, 심지어는 비평 쪽으로 흘러가 중국에 가서는 명령의 거부에 이를 수 있다.⁴²⁾

우리는 나치가 사용한 표현영역에 군사적인 표현방식이 많이 들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나치시대 언어에서 투쟁적인 표현방식이 추구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⁴³⁾ ‘전투(Schlacht)’라는 낱말도 나치시대에 선호되었다. 공식적인 입장에서 ‘노동전투(Arbeitsschlacht)’, ‘식량전투(Ernährungsschlacht)’, ‘생산전투(Erzeugungsschlacht)’⁴⁴⁾ 같은 낱말들이 정치선전에 이용되었다.

나치이데올로기와 연결됨으로써 일어난다. 나치언어에서 등장하는 이들 낱말들의 어휘적 내용은 그 이전의 의미로 해석할 수 없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나치 문체가 추구하는 표현의 상승구조 경향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42) Klemperer(1947: 160).

43) Vgl. Seidel/ Seidel-Sloty(1961: 47). 아울러 간과하지 말아야 할 사항은, 군대와 연관된 낱말들이 일상 영역에서도 많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독일어의 어휘를 확충해 나갔다는 사실이다. 이를테면 ‘경제의 선장(Wirtschaftskapitän)’이라든지 ‘경제의 사령부(Kommandostellen der Wirtschaft)’와 같은 표현이 자주 사용되었다. 심지어 원래 군대에서 ‘점호’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Appell’이라는 낱말이 의학용어에서도 눈에 띠었다. 의학저널에서 더 이상 ‘점사’라고 하지 않고 ‘건강점호’라고 말하고, 의사가 ‘점호하러 갔다’라고 말한다

44) 이 낱말은 언어유도되어 사용되었다. “‘생산전투’라는 말은 독일농업의 생산전투에만 사용되어야지, 서구의 다른 나라에서 행하는 그와 유사한 계획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Berning 1962: 168).

군사적 표현방식이 호평을 받았다는 사실은 낱말 ‘동원하다(mobilisieren)’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신뢰를 비치다’(das Vertrauen mobilisieren), ‘새로운 독자층을 동원하다(neue Leserschichten mobilisieren)’와 같은 표현이 당시에 많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어법은, 군사적 준비의 지칭을 위해 낱말 ‘동원하다’가 아주 지나치게 기피되었다는 점과 비교해 보면 더욱 흥미롭다.⁴⁵⁾

‘행진하다’, ‘행군하다’라는 뜻의 ‘marschieren’은 더 이상 군사적인 도보방식만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이 말은 기운을 북돋아 주는 말로, 새로운 목적을 위해 손에 손을 잡고 나아가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니까 이 낱말은 나치의 획일화된 국민의 이상적 행동을 지향하는데 이용되었던 것이다.⁴⁶⁾

4.2. 고풍어

국가사회주의자들은 제3제국의 통치체계가 과거 독일의 그것과 일치되고 따라서 합법성을 띠고 있다는 것을 대중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고풍어법을 사용하였다.⁴⁷⁾ 뿐만 아니라 그들은 교양 있는 지식층을 겨냥하여 그들을 설득하려는 목적에서 그 언어적 수단으로 고풍어법을 즐겨 사용하였던 것이다.⁴⁸⁾

나치는 역사적이며 시민적인 교양의 쾌감차원에서 고풍어법을 즐겨 사용했다. 그들은 자기 자신과 설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모두 ‘게르만족(Germanen)’, ‘부족(Stämme)’, ‘동부변경(Ostmark)’, ‘채찍(Geißeln)’, ‘칼(Schwerter)’, ‘전령관

45) Vgl. Seidel/ Seidel-Sloty(1961: 50).

46) Vgl. Bachem(1979: 127).

47) 나치시대에 사용된 낱말들은 이전부터 있었던 낱말들을 다시 새롭게 사용한 낱말들이 대부분이다. 고풍어가 다시 소생한 것은 당시 독일의 보수적 성향과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 나치는 이 점에 착안하여 보수적 소시민층의 지지를 얻어내기 위해 고풍어를 많이 사용했던 것이다. 물론 당 조직과 관련하여, 새로 생긴 대상을 위한 신조어도 필요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조어들은 늘 지금까지 사용해온 일상적 언어 재에서 온 합성어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내용을 얻은 고풍어이다. 옛날의 독일낱말이 다시 살아나서 통용되는 것은 게르만 신화와 연결되어 논의되기도 한다.

48) 나치시대의 고풍어법 사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고풍어법은 문예에서만 애호되는 문체수단은 아니다. 나치시대에 나치-청년-당 지도부는 청소년 운동의 신 낭만주의적 노력과 연관지어 정권에 역사적인 사이비-합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행정부서와 하위단위를 지칭하는데 고어를 사용하였다.”(Sowinski 1991: 242).

(Herolde), '방벽(Schützwälle)' 등이 아직 존재하던 세계로 옮겨 놓았던 것이다.⁴⁹⁾

나치언어에서 사용되는 고풍어는 주로 국가사회주의의 이데올로기와 연관되어 대중을 지배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테면 '관구(Gau)', '청년단(Gefolgschaft)', '근로소녀(Arbeitsmaid)', '청년부원(Jungmann)', '동부변경(Ostmark)', '민족의(völkisch)' 등의 낱말이 이에 해당된다. 이들 낱말 가운데 '청년단(Gefolgschaft)'이라는 낱말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Gefolgschaft'⁵⁰⁾라는 낱말은 타기투스(Tacitus)가 게르만 인의 생활을 묘사한 것과 연관지어 19세기초에 역사학에서 새로 만들어 사용한 낱말이었다. 이 낱말은 나치언어에서 여러 가지 의미로 쓰였는데, 그 중에서 고풍어적 의미로 사용된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년단의 세계관적-종교적 토대는 개개의 모든 진정한 지도자의 품성이 운명적으로 이 세상에 보내진 것이라는 확신이다. (...) 청년단에 포함되어 있는 도덕적인 의무는 총통에 대한 충성심에서, 청년단 내부에서의 친밀성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의 명예의 유지에서 절정을 이룬다.⁵¹⁾

청년단이라는 낱말은 그 의미를 더욱 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테면 건인불발의 뜻에서 '강철과 같은 청년단(eiserne Gefolgschaft)'과 같이 굳어버린 형식으로서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4.3. 외래어

일반적으로 편협한 국수주의로 지칭되기도 하는 나치의 국가사회주의에서

49) 황제가 'wurde' 대신에 'ward'를 쓴 것과 히틀러가 선행 속격 부가어를 쓴 것은 똑같이 지식계층을 겨냥한 효과적인 정치적 선전수단이었다.

50) 이 낱말은 게르만인들의 생활에 있어서 귀족과 왕 사이의 충성관계를 지칭하거나, 그러한 관계로 맺어진 시종들을 의미한다. 나치시대에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었다. '한 기업체에서 일하는 전 종업원'을 뜻하는 'Belegschaft'라는 의미와 '히틀러 청년단의 하위집단'을 지칭하는 말로 쓰였다.

51) Berning(1964: 87).

외래어가 많이 사용되었고, 더 나아가서 히틀러가 외래어를 선호하였다는 사실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⁵²⁾ 지도적인 입장에 있는 국가사회주의자들이 특정 언어사용에 있어서 외래어를 특히 선호하는 이유는 여러 방면에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면 첫째, 일상어는 주의력을 집중시키는 데 있어서 분명 부적합하다. 둘째, 많은 외래어들은 그 낱말의 강세를 낱말의 끝에 갖고 있다. 그렇게 되어서 그것들은 독일어 낱말과 구별되고, 눈에 띄이고, 트럼펫 소리 같은 효과를 내고, 어떤 자극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매혹시킨다. 히틀러가 외쳤던 ‘민족 단결의 날(Tag der nationalen Solidarität)’과 ‘미래의 보증인(Garant der Zukunft)’ 같은 말은 많은 사람들의 분별 의식을 빼앗는데 이용되었다. 셋째, 외래어를 개념적으로 파악하는 일은 쉽잖아서, 사람들을 쉽게 유혹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바로 지도층의 사람들이 바라던 바였다.⁵³⁾

이제 개별 어휘들을 살펴보기로 하자. 군사 용어들은 대체로 전혀 변경되지 않고 사용되었다. 이를테면 ‘전선(Front)’, ‘동원하다(mobilisieren)’ 등은 나치시대에 유행어가 되었다. 계급명칭은 독일어로 대체되지는 않았지만, ‘나치스돌격대(SA)’의 경우에는 고풍스러운 독일어명칭이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따라서 이 부대의 계급과 일반부대의 해당 계급을 구분할 필연성이 생겼다.⁵⁴⁾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특정 유행어에서 외래어가 선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치시대에는 ‘역동적인(dynamisch)’, ‘거대한(gigantisch)’, ‘모든(total)’, ‘영웅적인(heroisch)’, ‘긍정적(positiv)’, ‘보증인(Garant)’ 같은 외래어가 매우 많이 사용되었다. 이들은 표현의 상승효과를 제공하였고 나치이데올로기 실현에 일조를 하게 되었다.⁵⁵⁾

52) 처음에 나치는 언어정화주의를 옹호하였다. 나치는 남발하는 외래어를 독일어로 옮기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이를테면 ‘기관차’를 지칭하는 ‘Lokomotive’ 대신 ‘Zieh’를 사용했고, ‘속기와 타자능력을 갖춘 여사무원’을 지칭하는 ‘Stenotypistin’ 대신 ‘Spüte’라고 말하였다. 물론 이러한 언어정화주의적 경향은 어느 정도 성공을 했다. 그러나 이후 나치는 언어정화주의에서 실시해온 외래어배척운동을 완화시켰고 급기야 히틀러는 1940년 법으로 언어정화운동을 금지시켰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보면 외래어가 많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연설할 적에도 외래어를 많이 사용하였다.

53) Vgl. Trier(1969: 130f.).

54) Vgl. Seidel/ Seidel-Sloty(1961: 123).

외래어는 경멸적이고 혐오스러운 대상을 지칭하는 데에도 선호되었다. 이를 테면 ‘금권정치(plutokratisch)’, ‘체제(System)’, ‘의회주의 시대(Systemzeit)’ 등의 낱말들은 나치가 바이마르공화국 시대의 제도나 정부를 폄하하는 데 이용하였다.

5. 맺는 말

나치는 대중을 설득하고 조종하여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달성하기 위한 전술적 무기로 언어를 사용했다. 그들은 낱말이 갖고 있는 기존의 의미를 변화시켜, 사람들의 주의를 끌도록 했으며, 이러한 낱말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인 행동을 불러일으키는 표제어가 되어 선전의 중요한 수단이 되었다. 그래서 이 언어에는 감정을 자극하는 표현들이 많다. 나치는 강하고 격렬한 의미를 갖는 은유적 표현, 일상 생활에서 잘 쓰이지 않는 어법, 청중의 환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신비스러운 낱말을 애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상황을 언어적으로 이용하여 국민을 선동해나갔다. 나치는 표현의 의미를 상승고조시키기 위해 여러 부가어가 겹겹이 쌓여 나타나는 구조를 선호하였다. 이는 나치언어의 통사구조가 갖고 있는 독특한 표현 집적(集積) 특성이다. 다양한 부가어가 결합되어 나타나다보니 때로는 그 표현의 의미가 모호해지기도 한다.

나치시대에는 언론의 통제로 말미암아 획일적이고 규범에 맞추어진 기사만이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었고, 개별적으로 사용되는 낱말 또한 정부기관의 지침과 단속 하에서만 통용될 수 있었다. 제3제국의 우월성을 나타내기 위하여 가장 독일적인 색채를 풍기는 낱말이 사용되어야 했으며, 그런 낱말은 독일 이외의 사항들을 지칭할 때에는 사용될 수 없었다. 그리고 독일이 처한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여, 위기 시에는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어감을 주는 표현들이 금

55) Vgl. Seidel/ Seidel-Sloty(1961: 124). 나치시대에 사용된 낱말은 그것이 이데올로기적인 것을 언급하면 할수록 개념적으로 볼 때, 합리적 내용을 덜 갖고 있는 특징을 볼 수 있다. 이때에 외래어가 합리적 내용을 보충하는 역할을 한다. 물론 이는 표현의 모호함을 겨냥하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표현을 상승 고조시키고 다른 한편으로는 표현을 애매하게 하려는 나치문체의 이중적 특성은 외래어의 사용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지되었다. 나치는 대중의 불만을 탐지하고 언어유도를 통해 국민의 정치적 결속을 유지하고자 했다. 계층간의 불화는 민족공동체 담론 속에서 녹아 내리고, 경제적 곤궁의 문제 또한 언어가 제시하는 비전의 뒤편에 가려져서 현실적인 의미를 잃어버렸다. 이와 같은 언어적 일체감 속에서 대중은 나치가 추구하는 이데올로기를 실현하기 위한 선봉에 서게 되었다.

참고문헌

- 김종영 (2003): *파시즘 언어*, 서울.
- Bachern, Rolf (1979): *Einführung in die Analyse politischer Texte*. München.
- Berning, Cornelia (1961-1963): Die Sprache des Nationalsozialismus, in: *Zeitschrift für deutsche Wortforschung* 17-19.
- Berning, Cornelia (1964): *Vom Abstammungsnachweis zum Zuchtwart. Vokabular des Nationalsozialismus*. Berlin.
- Bloch, Ernst (1972): *Vom Hasard zur Katastrophe*, Frankfurt.
- Ehlich, Konrad(Hg.) (1989): *Sprache im Faschismus*. Frankfurt am Main.
- Eisenberg, Peter (1989): *Grundriß der deutschen Grammatik*. 2. Aufl. Stuttgart.
- Hitler, Adolf (1938): *Reden des Führers am Parteitag der Arbeit 1937*, München.
- Hitler, Adolf (1943): *Mein Kampf*. 815-820. Aufl. München.
- Keller, Rudolf. E. (1986): *Die Deutsche Sprache und ihre historische Entwicklung*. Hamburg.
- Kessemeier, Carin (1967): *Der Leitartikler Goebbels in den NS-Organen 'Der Angriff' und 'Das Reich'*, Münster.
- Klemperer, Victor (1947): *LTI. Notizbuch eines Philologen*. Berlin.
- Klöss, Erhard(Hg.) (1967): *Reden des Führers. Politik und Propaganda Adolf Hitlers 1922-1945*. München.
- Phelps, Geginard H. (1968): Hitlers grundlegende Rede über den Antisemitismus, in: *Viertelsjahresheft für Zeitgeschichte* 16.
- von Polenz, Peter (1978):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9. Aufl. Berlin/New York.
- Seidel, E./ Seidel-Slotty, I (1961): *Sprachwandel im Dritten Reich. Eine*

kritische Untersuchung faschistischer Einflüsse, Halle.

Sowinski, Bernhard (1991): *Deutsche Stilistik. Beobachtungen zur Sprachverwendung und Sprachgestaltung im Deutschen*. Frankfurt am Main.

Trier, Jost (1969): Alltagssprache, in: Patzig, Günther u.a., *Die deutsche Sprache im 20. Jahrhundert*. 2. Aufl. Göttingen, S. 110-133.

Volmert, Johannes (1989): Politische Rhetorik des Nationalsozialismus, in: Ehlich, Konrad(Hg.), *Sprache im Faschismus*. Frankfurt am Main, S. 137-161.

Wedleff, T. (1970): Zum Stil in Hitlers Maireden, in, *Muttersprache*, S. 107-127.

Zusammenfassung

Zur Struktur der Nazisprache

Kim, Tschong-Young(Mokpo National Universität)

In dieser Arbeit wird der Versuch unternommen, die Struktur der Nazisprache zu analysieren. Nazisprache hat die Aufgabe, die Ideologie des Nationalsozialismus zu rechtfertigen und zu stärken. Um diese Aufgabe zu realisieren, haben sich die Nationalsozialisten viel bemüht.

Im zweiten Abschnitt wird die Charakteristik dieser Sprache erwähnt. Hier handelt es sich um den Hintergrund der Nazisprache und Sprachlenkung im Nationalsozialismus.

Im Abschnitt drei wird die syntaktische Struktur der Nazisprache beschrieben. Syntaktisch betrachtet, kann man in der Nazisprache auffällende Struktur feststellen, und zwar eine hohe Frequenz von Adjektiv-Attributen, Adverbiale und Superlative. Bei den Adjektivattributen läßt sich eine Reihe interessanter Entwicklungen beobachten. In vielen Fällen tendieren die Attributionen zur idiomatischen Verfestigung. Im Bereich des Adverbs finden auffällige Verschiebung statt. Adverbien gehören zu den wichtigsten Mitteln, um die Haltung des Sprechers gegenüber einem geäußerten Sachverhalt auf die situativen Bedingungen, insbesondere auf die Haltung und Erwartungen der Adressanten, abzustimmen. Und auffällig ist die Häufungwie beispielsweise am von Superlativen auf engem Raum.

Durch den inflationären Gebrauch der superlativischen Ausdrücke verlieren im Bewußtsein des nationalsozialistischen Redners allmählich ihre Fähigkeit, den qualitativen Extremwert eines Sachverhalts zu bezeichnen. Deshalb grief vor allem Hitler schon früh zu stärkeren Mitteln, indem er die Gradative des genannten Typs in den Superlativ setzt.

Im Abschnitt vier wird die lexikalische Struktur der Nazisprache beschrieben. Während des Dritten Reiches war die Entwicklung auf den Wortschatz in lexikalischen Bereichen erheblich, wie beispielsweise am Gebrauch der Modewörter, die sich auf ideologische, dynamische und militärische Terminologie bezogen sind, am Gebrauch altertümlicher Wörter und am Gebrauch von Fremdwörter. In der Zeit des Nationalsozialismus bedienten sich die Nationalsozialisten neben vielen Modewörter veralteter Wörter zur Kennzeichnung von Ämtern und Einheiten, um dem Regime eine historische Legitimität zu verschaffen. Und sie gebrauchten auch Fremdwörter sehr häufig, um ihren Reden einen pseudowissenschaftlichen Anstrich zu geben.

[검색어] 나치언어, 언어유도, 부가어, 최상급, 유행어
Nazisprache, Sprachlenkung, Attribut, Superlativ, Modewort,

김종영

534-729

전남 무안군 청계면 도립리 61

목포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yesora@hotmail.com